

# '07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추진

## 기업의 평가비용 부담 완화, 평가모델 및 심사 절차 개선

정부와 4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시행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이 지난해 운영성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된다.

우선, 기업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① 기업의 기술평가비용 부담을 중견 20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② 기술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될 경우 평가비용을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③ 은행의 예비심사절차를 생략하여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가 미흡한 점을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사업 대출실적 (06.12월말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계	
		건수	금액
기술평가실시	신용	15	7,722
	신용+보증·담보	9	8,984
	보증·담보	4	1,750
	소계	28	18,456
기술평가생략	신용	37	9,127
	신용+보증·담보	12	6,184
	보증·담보	6	2,704
	소계	55	18,015
합계		83	36,471

### 신청기업현황(매출액)

구분	신청 건	비고
1억 미만	30	12.9%
1억 이상 5억 미만	34	14.7%
5억 이상 10억 미만	41	17.7%
10억 이상 50억 미만	87	37.5%
50억 이상 100억 미만	22	9.5%
100억 이상	18	7.8%
계	232	100.0%

보완하기 위해, ① 상반기 중 관계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표준모델(STR)의 등급체계 등을 개선하고 ② 기술평가기관도 중견 6개 기관 중 지난해 평가실적 및 평가인력확보가 우수한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자격도 중견 산자부 R&D성공기업, NEP인증기업, 벤처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정부 지원 R&D성공기업 NET, GS 등 정부인증기업 전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시중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술 금융취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과의 구조적 문제 해소,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리스크 완화방안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운영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동사업에 대한 기업의 신청이 미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책금융에 비해 높은 금리, 기술평가 대출성사여부에 대한 기업의 회의적 인식, 기업의 평가비용부담 등의 원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 신청기업현황(자본금)

구분	신청 건	비고
1억 미만	15	6.5%
1억 이상 5억 미만	98	42.2%
5억 이상 10억 미만	52	22.4%
10억 이상 50억 미만	63	27.2%
50억 이상	4	1.7%
계	232	100.0%

### 신청기업현황(지원자격현황)

구분	신청 건	비고
벤처기업	175	27.8%
이노비즈기업	97	15.4%
NEP인증기업	30	4.8%
특허권보유기업	164	26.1%
연구개발기업	64	10.2%
정부지원R&D성공기업	99	15.7%
계	629	100.0%